

MOST 과학기술부 정책홍보 담당관실	보도자료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	보도시점	'05. 7. 11(월) 조간부터	
			자료배포일	'05.7. 8 매 수 총 2매
	담당	과학기술정책국	과 장	오일근 02)2110-3770
	담당	과학기술정보과	서기관	신준호 02)2110-3776

‘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’ 선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

— 1차 후보기술분야 선정결과에 대해 발표·논의 예정 —

□ 과학기술부(부총리 겸 장관 : 吳 明)와 「미래 국가유망기술위원회」는 오는 7월 11일(월, 14:00~16:30) 서울교육문화회관(본관2층 거문고홀)에서 ‘미래 국가유망기술분야’ 선정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합니다.

○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달 2일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발족시킨 「미래 국가유망기술위원회*」와 그 산하의 9개 실무작업반† 이 논의·검토한 후보 기술분야 선정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.

* 대표공동위원장 :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, 공동위원장 : 신재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, 황우석 서울대 교수

† 위원은 총 76명. 「미래 국가유망기술위원회」 위원도 위원으로 참여 중

□ 그 동안 「미래 국가유망기술위원회」와 9개의 실무작업반에서는 향후 10년, 20년 이후의 미래 국가유망기술 후보분야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선정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.

○ 「미래 국가유망기술위원회」는 후보 기술분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「과학기술예측조사('05~'30)」 결과, 국내외 선행사례, 관계기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, 그리고 약 3,500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하였습니다.

○ ‘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’의 선정작업은 ①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, ②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여, ③국가안위와 위상제고에 기여, ④우위를 선점한 분야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, ⑤기초과학 진흥과 진리 탐구에 기여 등 5대 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.

□ 앞으로 「미래 국가유망기술위원회」는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7월 중순까지 ‘미래 국가유망기술분야’를 선정하고, 그 결과는 동 위원회 명의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(8월경 개최 예정)에 보고할 예정입니다.

□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한정된 국가R&D자원을 중장기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해 나갈 것이며, 부처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기초·원천분야의 연구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○ 이와 더불어, 선정된 유망기술분야를 대상으로 국가기술지도(National Technology Road Map) 작성방향을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후속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

□ 참고로 금번 ‘미래 국가유망기술분야’의 선정은 「과학기술예측조사(’05~’30)」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추진하는 2단계 후속작업입니다.

○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3년 8월부터 ‘기술예측위원회’를 구성·운영 하였으며, 지난 5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761개의 미래 기술과제 도출 등 2030년까지의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.

※ 후보 ‘미래 국가유망기술분야’ 선정(안)은 공청회 현장에서 발표 예정임